

少陽人 처방 중 赤·白茯苓 구별의 필요성 與否 고찰

강태곤·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Red Poria from White Poria in Soyangin Prescription

Kang Tae-go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icacy of Red Poria(赤茯苓) and White Poria(白茯苓) used for Soyangin Prescriptions in Lee Je-Ma's writings.

2. Methods

We analysed Soyangin Prescription with Poria in 『Dongyi Suse Bowon Chobonkwon(東醫壽世保元 草本卷)』, 『Dongyi Suse Bowon Gabobon(東醫壽世保元 甲午本)』, 『Dongyi Suse Bowon Sinchukbon(東醫壽世保元 辛丑本)』 and 『Dongyi Sasang Sinpyun(東醫四象新編)』 based on the efficacy of Poria written in 『DongMugo YakSungGa(東武遺藁 藥性歌)』.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Red Poria and White Poria seems to be not differen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2) Poria in Soyangin Prescription had used from the traditional medical point at the beginning, in 『Dongyi Suse Bowon Chobonkwon(東醫壽世保元草本卷)』, but its usage was changing until 『Dongyi Suse Bowon Sinchukbon(東醫壽世保元辛丑本)』 as the poi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3) It is necessary to use Poria in Soyangin Prescription as the essence of Soyangin's life because it effects on the whole body without any distinction from body's upper part with lower part and body's exterior part with interior part.

Key Words : Red Poria, White Poria, Soyangin, Prescription, Lee Je-Ma

I. 緒 論

茯苓은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이하 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이하 辛丑本), 『東醫四象新編』(이하 四象新編) 등의 少陽人 처방에서 赤茯苓, 白茯苓, 茯苓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

• 접수일 2007년 3월 12일 승인일 2007년 3월 28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nlhnae@hanmail.net

어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에서 茯苓의 효능 및 茯苓을 구분하여 사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찾을 수 없다. 茯苓 單味の 효능 및 赤·白茯苓의 구분은 東武의 저작 중 오직 『東武遺藁』 藥性歌에서만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東武遺藁』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선 ‘茯苓味淡 滲濕利竅 白化痰涎 赤通水道赤’라 하여 赤茯苓의 通水효능과 白茯苓의 化痰효능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先師藥性說歌」에선 茯苓이 少陽인에 있어 ‘固腎立腎’한다 하였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사상인 약방 및 약물 연구에선²⁾³⁾⁴⁾⁵⁾⁶⁾⁷⁾ 茯苓의 赤白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며, 茯苓 자체의 문헌적 고찰로 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⁸⁾⁹⁾은 『東武遺藁』 藥性歌 연구에서 「先師藥性說歌」의 ‘固腎立腎’ 하는 茯苓이 ‘補腎和腎’하는 熟地黃과 ‘健腎直腎’하는 山茱萸와 함께 少陽人 保命之主의 유지와 보존에 가장 기본적인 약이라 하였으며,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서 茯苓의 藥性歌는 『濟衆新編』의 藥性歌에 그 淵源이 있어 東武의 藥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既存의 藥性歌를 중심으로 출발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서의 茯苓의 고찰은 “기존 證治醫學의 이론¹⁰⁾¹¹⁾을 바탕으로 사상의학

에서도 健脾利水하는 白茯苓과 行水治濕熱하는 赤茯苓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옳은가?, 茯苓의 保命之主와 관련된 효능은 무엇인가?”란 두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少陽人 처방 중에서 赤茯苓, 白茯苓, 茯苓의 사용례를 조사하고, 『東武遺藁』 藥性歌의 保命之主 유지기능 및 滲濕利竅, 化痰涎, 通水道와 관련된 少陽人の 痰과 小便不利 및 泄瀉의 병리기전 분석하여 사상의학에서 赤·白茯苓 구분의 필요성 여부 및 茯苓의 효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本 論

1. 사상의학에서 茯苓의 사용례

茯苓이 사용된 처방의 조사는 『草本卷』, 『四象新編』의 처방 및 『甲午本』, 『辛丑本』의 新定方을 중심으로 하였다. 茯苓이 사용된 처방의 분석은 少陽人 처방에서 多頻度로 사용되는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生地黃, 石膏, 知母,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위주로 하였다.

1) 『草本卷』 少陽人 처방에서 茯苓의 활용

『草本卷』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은 총 18개이며 赤茯苓은 14개의 처방에서, 白茯苓은 4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기존의 처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六味地黃湯, 七味苦蓼湯, 七味猪苓湯, 五苓散, 猪苓白虎湯, 朱砂安神丸, 肥兒丸을 제외하고는 茯苓이 사용된 대부분의 처방에서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의 전부 및 일부가 사용되었으며, 六味계열의 약물과(熟地黃, 山茱萸, 澤瀉) 白虎湯계열의 약물에(石膏, 生地黃, 知母) 관계없이 대

1) 『東武遺藁』 「上篇」 茯苓味淡 滲濕利竅 白化痰涎 赤通水道 ○ 茯苓 固腎立腎
 2)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33-51.
 3)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1): 33-44.
 4)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的 研究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17(3): 22-30.
 5) 서웅, 송정모. 少陽人 新政處方의 形成過程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1):213-243.
 6) 심규현, 심미란, 김정렬, 전종원, 김달래. 四象體質別 利小便 藥物의 效能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87-196.
 7)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21
 8) 박성식. 「東武遺藁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9)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1-9.

10) 『東醫寶鑑』 「券三·木部」 白色者補 赤色者瀉
 11)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공편저. 本草學. 永林社, 서울, 1998:302-303.

Table 1. 『草本卷』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

茯苓區分	處方名	計
赤茯苓	敗毒散, 少陽利水湯, 五苓散, 麥瓜湯, 清腸散火湯, 苦參敗毒散, 瓜蘘仁地黃湯, 黃柏地黃湯, 豬苓白虎湯, 七味苦參湯, 水火既濟湯, 七味豬苓湯, 麥苓湯, 忍冬藤豬苓湯	14
白茯苓	六味地黃湯, 朱砂安神湯, 肥兒丸, 腰將軍湯	4

Table 2. 『草本卷』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 분석

處方	茯苓	熟地黃	山茱萸	澤瀉	生地黃	石膏	知母	荊芥	防風	羌活	獨活
六味地黃湯	白	○	○	○							
腰將軍湯	白	○	○	○			○	○	○	○	○
朱砂安神湯	白	黃連, 朱砂, 枸杞子									
肥兒丸	白	川·胡黃連, 使君子 等									
麥瓜湯	赤	○	○	○		○		○	○	○	○
瓜蘘仁地黃湯	赤	○	○	○				○	○	○	○
黃柏地黃湯	赤	○	○	○				○	○	○	○
水火既濟湯	赤	○	○	○	○		○				
清腸散火湯	赤		○	○	○			○	○	○	○
七味苦參湯	赤		○	○	○		○				
七味豬苓湯	赤		○	○	○						
忍冬藤豬苓湯	赤			○	○			○	○	○	○
敗毒散	赤				○			○	○	○	○
少陽利水湯	赤			○					○	○	
五苓散	赤			○							
苦參敗毒散	赤			○				○	○	○	○
麥苓湯	赤			○				○	○	○	○
豬苓白虎湯	赤			○	○	○					

※ '赤'은 赤茯苓, '白'은 白茯苓, '茯'은 茯苓이 사용된 처방을 의미한다. 이하 Table에서도 같다.

부분의 처방에서 赤茯苓이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甲午本』 少陽人 처방에서 茯苓의 활용

『甲午本』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은 총 11개이며 이 중 『甲午本』 新定方은 6개였다. 新定方 중 赤茯苓은 5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고 白茯苓이 사용된 처방은 없었

Table 3. 『甲午本』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

茯苓子분	既存處方	新定方	計
赤茯苓	豬苓湯, 五苓散, 導赤湯	柴胡四苓湯, 豬苓白虎湯, 七味豬苓湯, 七味苦參湯, 黃連清腸湯	8
白茯苓	六味地黃湯, 肥兒丸		2
茯苓		水火既濟湯	1
計	5	6	11

으며, 赤白茯苓의 구분이 없이 사용된 처방이 1개가(水火既濟湯) 있었다. 水火既濟湯은 『草本卷』에서도 보이는 처방으로 『草本卷』에선 赤茯苓이 사용되었다가 『甲午本』에서 茯苓으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따라서 『甲午本』 新定方에서도 『草本卷』과 마찬가지로 白茯苓 보다는 赤茯苓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茯苓이 사용된 『甲午本』 처방 중 荊芥, 防風, 羌活, 獨活과 같이 쓰이는 처방은 없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3) 『辛丑本』 少陽人 처방에서 茯苓의 활용

『辛丑本』 少陽人 처방 중 茯苓이 사용된 처방은 총 15개이며 이 중 『辛丑本』 新定方은 10개였다. 新定方 중 赤茯苓은 2개의 처방에서 사용되었고 白茯苓이 사용된 처방이 2개였으며 赤茯苓, 白茯苓 구분 없이 茯苓으로 표기된 경우가 6개였다. 『甲午本』에선 茯苓이 사용되지 않았던 木通大安湯에 澤瀉, 荊芥, 防風 등과 함께 赤茯苓이 추가되었으며 荊防敗毒散은 『甲午本』 처방에서 玄參, 山梔子, 忍冬藤, 薄荷가 빠지고 生地黃, 車前子와 함께 赤茯苓이 추가되었다. 黃連清腸湯은 『甲午本』에선 赤茯苓이 쓰였으나 『辛丑本』에선 赤白 구분 없이 茯苓으로 표기되어 있다. 『草本卷』에서 『辛丑本』으로 넘어 오면서 赤茯苓의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辛丑本』 新定方에서 赤茯苓이 사용되어진 荊防敗毒散과 木通大安湯은

치료하는 약물로 竹瀝을 말하고 있다¹²⁾. 또한 痰과 瘀血로 인한 痺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輕粉丸¹³⁾을 언급하나 少陽人 痰症에 주로 쓰이는 甘遂를 제외하고는 乳香, 沒藥, 寒水石, 石雄黃, 輕粉 등의 化瘀血, 清熱시키는 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治痰 처방으로 腰將軍湯¹⁴⁾에서 유일하게 白茯苓이 사용된다.

『甲午本』

『甲午本』에서 少陽人의 痰飲의 병리기전은 痰水와 燥氣로 인한 結胸證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結胸의 전 단계인 嘔逆, 寒熱往來, 惡寒, 發熱, 口苦, 咽乾, 目眩하는 小柴胡湯證에서 엿볼 수 있다. 東武는 小柴胡湯證 중 嘔逆하는 것은 裏熱이 上逆한 것이니 마땅히 千金導赤散을 써야 한다 하였으며¹⁵⁾, 寒熱往來하는 것은 荊防敗毒散을 쓴다고 하였다¹⁶⁾. 또한 口苦, 咽乾, 目眩한 것은 例證이고, 耳聾은 최고 重證이니 柴胡瓜蒌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¹⁷⁾. 胸脇滿한 것은 점차적으로 結胸이 되려는 것이니 寒熱往來·胸脇滿하면서 大便이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것은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을 쓰고 大便이 하루가 지난 것은 柴胡瓜蒌湯에 石膏 한 돈을 가하고 이틀까지 이른 것은 白虎湯을 쓴다고 하였다¹⁸⁾.

12) 『草本卷』 「藥方 第一統」 苦麥治龜胸咳嗽 磁石治眼病 金銀花治癰疽 黃丹治泄瀉 瓜蒌仁治乳疔 竹瀝治痰燥
 13) 『草本卷』 「藥方 第一統」 輕粉丸 治痺病 足不遂 則堪用 手不仁者不堪用 恐有倒戈之患 咽喉腫痛 眼病 鼻塞 胸腹痞悶 痰火走注之症 皆可用之...
 14) 『草本卷』 「藥方 第二統」 腰將軍湯 治氣喘消痰 熟地黃 七錢 山茱萸 白茯苓 澤瀉 玄麥 瓜蒌仁 各二錢 牡丹皮 防風 獨活 知母 貝母 前胡 車前子 羌活 荊芥 苦參 各一錢.
 15) 『甲午本』 「少陽人外感勝胱病論」 論曰 張仲景所論 少陽病 卽少陽人 勝胱下陷之陰氣 爲熱邪所壅 未達下陷 凝聚齊間 膠固因滯之證也 此證 嘔者 裏熱上逆也 當用千金導赤散.
 16) 『甲午本』 「少陽人外感勝胱病論」 寒熱往來者 陰氣凝聚 齊間未陷或陷 故 其證 寒多熱少 而雖則鋼寒時 亦發熱也 當用荊防敗毒散.
 17) 『甲午本』 「少陽人外感勝胱病論」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因滯 齊間欲降未降 故 但寒無熱 而至於耳聾也 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最重證也 不可不急治 當用柴胡瓜蒌湯 三四服.

結胸에 이르렀을 경우 甘遂를 써서 痰水와 燥氣가 응결된 부위를 직접 공격하고, 痰이 나거나 숨이 짧게 나면서 結胸일 때는 직접 水結을 공격하지 말고 柴胡瓜蒌湯을 사용한다. 燥渴證과 譫語가 있으면 柴胡瓜蒌湯에 白虎湯을 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¹⁹⁾.

『甲午本』에서의 少陽人 痰飲의 병리기전에 사용되는 荊防敗毒散²⁰⁾, 千金導赤散²¹⁾, 柴胡瓜蒌湯²²⁾, 甘遂, 白虎湯에서 茯苓은 한번도 사용되지가 않았으며 結胸의 원인인 痰飲을 직접 치는(清痰燥痰) 약재가(生地黃, 木通, 黃連, 瓜蒌, 柴胡 등) 주로 사용되었다.

『辛丑本』

『辛丑本』에서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해야 하는 小柴胡湯證에 荊防敗毒散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荊防敗毒散의 작용 기전으로 清裏熱·降表陰하면 痰飲이 스스로 풀리고 結胸이 예방된다고 하였으며, 清痰燥痰하는 것은 降陰痰散에 무익하다 하였다²³⁾.

『甲午本』과 같이 小柴胡湯證에 荊防敗毒散

18) 『甲午本』 「少陽人外感勝胱病論」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寒熱往來 胸脇滿 而大便不過一晝夜有餘者 當用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大便過一晝夜有餘者 當用柴胡瓜蒌湯 加石膏一錢 至於二晝夜 則當用白虎湯.
 19) 『甲午本』 「少陽人外感勝胱病論」 水逆還吐 而結胸者 表裏氣猶壯 而其勢最急 不可不急用甘遂 直攻痰水燥氣壅結之處所也 汗出短氣而結胸者 當用柴胡瓜蒌湯 三四服 又連日服 徐徐以解水結 而不可輒用甘遂直攻水結 燥渴譫語而結胸者 當用柴胡瓜蒌湯合白虎湯 三四服 又連日服 徐徐以解水結 而不可輒用甘遂直攻水結.
 20)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防風, 玄麥, 山梔子, 忍冬藤, 地骨皮, 荊芥, 薄荷.
 21) 千金導赤散: 生地黃, 木通, 黃連, 柴胡, 山茱萸, 覆盆子.
 22) 柴胡瓜蒌湯: 生地黃, 木通, 瓜蒌實, 山茱萸, 覆盆子, 黃連, 苦參, 柴胡, 前胡, 獨活.
 23)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小柴胡湯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不轉變而自愈 此法 以汗吐下三法 論之則可謂近善而巧矣 然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病不轉變之藥 則從古斯今 得此病者 真是寒心矣 耳聾胸滿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 擬之乎 噫 後來龔信所製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表寒病三神山不死藥乎 此證 清裏熱而降表陰 則痰飲自散 而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 則無益於陰降痰散 延拖結胸 將成 而或別生奇證也.

을 사용하지만 『辛丑本』 荊防敗毒散에는 赤茯苓이 들어가 있다.

結胸證에는 甘遂를 먼저 쓰고 이어서 荊防導赤散²⁴⁾으로 병을 눌러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헛구역질하고 숨이 차거나 약을 토하지 않는 경우에는 荊防導赤散에 茯苓과 澤瀉를 각각 1돈씩 쓴다고 하였다. 燥渴과 譫語 증상에는 甘遂를 쓰고 地黃白虎湯을 쓴다고 하였다²⁵⁾.

즉 結胸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약으로 甘遂를 택한 것은 『甲午本』의 생각과 같으나 토하지 않아 甘遂의 적응증이 아니라면 導赤降氣湯(荊防導赤散加 茯苓, 澤瀉)를 사용한다고 하여 結胸證에도 茯苓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少陽人 小便不利(赤澁)와 茯苓

『草本卷』

『草本卷』에서는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여 陽人은 大小便이 滑利하여야 길하다고 하였다²⁶⁾. 또한 少陽人 병에 있어서 小便이 赤黃한 것은 불길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⁷⁾.

目赤, 頭痛, 小便赤澁한 外感內熱의 처방으로 導赤散을 제시하고 있으며²⁸⁾, 大小便 不通에는 猪苓白虎湯을 사용하였다²⁹⁾. 導赤散에는 茯苓이 사용되지 않으며 猪苓白虎湯에는 赤茯苓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甲午本』 表病에선 小便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裏病에선 張仲景 陽明證에서 ‘小便不利 脈浮而渴’한 猪苓湯 적응증과 大便秘하고 小便이 붉은 三陽合病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猪苓湯, 白虎湯 보다는 地黃白虎湯³⁰⁾, 綿上添花白虎湯³¹⁾, 渡海白虎湯³²⁾, 猪苓白虎湯³³⁾, 陽毒白虎湯³⁴⁾을 사용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³⁵⁾. 猪苓湯證과 三陽合病을 少陽人 大腸病 胸膈熱證으로 정의하고 大便이 통하지 않으면서 胸悶煩燥한 것(地黃白虎湯), 물을 많이 마시며 小便이 붉어지는 것(猪苓白虎湯), 손발 내리는 것, 譫語의(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순으로 위중하게 보았으며 舌卷動風하면 손을 쓰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纏喉風, 腎腫, 背癰은 협증이며 流注丹毒, 發斑, 陽毒咽喉, 黃疸, 面目口鼻牙齒의 病은(陽毒白虎湯) 병이 발생한 시점에서 중증이 된 것이라 하였다³⁶⁾. 大腸病 胸膈熱證의 치료는 石膏, 知母, 生地黃이 포함된 처방이 주를 이루며, 茯苓이 포함된 처방은 猪苓白虎湯 한 처방뿐이다. 大便이 통하지 않으면 白虎湯 계열의 약을 쓰다가 다시 小便이 赤澁한 증상까지 합쳐지면 赤茯苓을 加

30) 地黃白虎湯: 石膏, 生地黃, 知母, 山茱萸.

31) 錦上添花白虎湯: 地黃白虎湯+山茱萸, 覆盆子(治譫語).

32) 渡海白虎湯: 石膏, 生地黃, 知母, 覆盆子, 山茱萸, 肉苁蓉, 苦參, 枸杞子(治譫語).

33) 猪苓白虎湯: 石膏, 生地黃, 知母, 黃柏, 澤瀉, 猪苓, 赤茯苓(治小便不通).

34) 陽毒白虎湯: 石膏, 生地黃, 荊芥, 牛蒡子, 羌活, 獨活, 柴胡, 玄參, 山梔子, 忍冬藤, 薄荷.

35)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 今考更定 此證陽明者 但熱無寒之謂也 三陽合病者 太陽少陽陽明俱有之謂也 已上諸證 當用猪苓湯白虎湯 而猪苓湯當去阿膠 白虎湯 當去甘草 藥不可以不盡善擇美 則別爲證附 已上諸證 當用地黃白虎湯 綿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

36)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 少陽人大腸病 胸膈熱證 受病之初 雖有胸悶煩燥之驗 而其機不甚顯 則不可執一而點證也 若使少陽人病 胸悶煩燥之驗 顯然露出 使人可覺 則其病已險 而難爲措手矣 凡少陽人病 大便過一晝夜有餘者 胸悶煩燥之初證也 引欬 小便赤者 次尤證也 揚手躡足者 次險證也 譫語者 次危證也 譫語之次 則舌卷動風而無及矣 纏喉風 腎腫 背癰 腦疽受病之日 已爲險證也 流注丹毒 發斑 陽毒 咽喉 黃疸 面目口鼻牙齒之病 成病之日 皆爲重證也.

24) 荊防導赤散: 生地黃, 木通, 玄參, 瓜蒌仁,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25)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凡結胸 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荊防導赤散以壓之 乾嘔短氣 而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用荊防導赤散 加茯苓澤瀉各一錢 二三服又連日服而亦病愈 燥渴譫語者 尤極險證也 急用甘遂 仍煎地黃白虎湯 三四貼以壓之又連日服地黃白虎湯.

26) 『草本卷』 「病變·第五統」 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不吉.

27) 『草本卷』 「病變·第五統」 少陽人病 小便赤黃則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其病退也.

28) 『草本卷』 「藥方·第一統」 導赤散 治外感內熱 其證 目赤 頭痛 小便赤澁 生地黃 三錢 木通 二錢.

29) 『草本卷』 「藥方·第二統」 猪苓白虎湯 治大小便不通證 石膏 生地黃 各四錢 知母 二錢 黃柏 澤瀉 猪苓 赤茯苓 各一錢.

한 猪苓白虎湯을 사용하고, 더욱 증상이 심하면 다시 赤茯苓을 빼고 石膏, 知母, 生地黃 등이 주가 되는 처방을 썼다.

少陽人 裏病에서 小便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消渴病이 있다. 東武는 消渴病을 陰虛火動하여 大腸이 熱하고 뼈가 蒸하는 병으로 정의하였다. 陰虛火動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癰疽와 強中症에는 淸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³⁷⁾ 뒤에 다시 陰虛火動에 水火既濟湯,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을 사용한다고 하였고³⁸⁾ 바로 뒤의 조문에선 下消와 強中症에 淸涼散火湯을 陰虛惡熱症에는 水火既濟湯을 제시하고 있다³⁹⁾. 처방의 제시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은 없으나 陰虛火動의 대표적 처방으로 제시한 水火既濟湯,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에는 모두 茯苓이 쓰인다. 淸涼散火湯⁴⁰⁾, 防風通聖散⁴¹⁾, 陽毒白虎湯⁴²⁾에서는 茯苓이 사용되지 않는다.

少陽人 浮腫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小便이 붉으면 木通大安湯을 매일 복용하고, 小便이 맑으면 木通大安湯을 3-5일에 한번 복용하는 치법이 나온다⁴³⁾. 여기서 木通大安湯⁴⁴⁾은

37)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 而中消爲此病之主證 上消 則中消之初證也 下消 則中消之未證也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 則中消之變證也 癰疽強中之病 則中消之危證也 治法 宜早宜急 於上消中消不可差緩 太晚於下消 癰疽強中 宜用 淸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38)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陽人 陰虛火動 大腸熱骨蒸之病 而其病纔始而及輕 故 可治也 不急治益危 當用火既濟湯 七味苦參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 必戒哀怒斷酒色.

39) 『甲午本』 「少陽人內觸大腸病論」論曰 下消強中 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 大腸火骨蒸之新病 皆數年調治服藥 然後可以免危病 而下消強中者 當用淸涼散火湯 陰虛午熱者 當用火既濟湯.

40) 淸涼散火湯: 忍冬藤, 苦參, 生地黃, 覆盆子, 薄荷, 山梔子, 防風, 石膏, 荊芥, 牛蒡子.

41) 防風通聖散: 滑石, 生地黃, 防風, 石膏,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薄荷, 荊芥, 牛蒡子, 山梔子.

42) 陽毒白虎湯: 石膏, 生地黃, 荊芥, 牛蒡子, 羌活, 獨活, 柴胡, 玄參, 山梔子, 忍冬藤, 薄荷.

43) 『甲午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泛論」 浮腫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日再服 六七日內 浮腫必解 浮腫解後 又數日服 小便赤 則每日一服 小便清 則間

小便을 조절하지만 茯苓이 쓰이지 않았다.

『辛丑本』

『甲午本』에는 表病에서 小便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辛丑本』에선 亡陰證 치험례에서 小便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東武는 亡陰證 치험례에서 荊防地黃湯에 石膏를 가하여 사용한 후 小便이 滑利해졌음을 말하면서 亡陰證의 치료에 知母白虎湯보다 荊防地黃湯의 약력이 10배는 강하다는 설명을 하였다.⁴⁵⁾ 荊防地黃湯에는 赤白의 구분이 없이 茯苓을 사용하였다.

『甲午本』에서 裏病에 속해있던 猪苓湯證과 三陽合病症은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表病으로 분류되며 猪苓湯의 대응으로 猪苓車前子湯을, 白虎湯의 대응으로 地黃白虎湯을 제시한다.⁴⁶⁾ 또한 小便不利에 大便이 秘燥하면 地黃白虎湯을 쓴다고 하여 小便이 不利하다가 大便이 秘燥해지면 茯苓이 들어간 처방보다 石膏, 知母, 生地黃이 주가 되는 처방이 적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⁴⁷⁾. 猪苓車前子湯 처방 구성에는 赤白의 구분 없이 茯苓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地黃白虎湯에는 茯苓이 쓰이지 않았다.

『甲午本』에서 陰虛火動의 병리로 설명되어지던 消渴은 『辛丑本』으로 넘어오면서 胃局과 大腸局의 淸陽이 상승하지 못하여 발생한 병리로 설명된다⁴⁸⁾. 上消와 中消는 胸膈熱

三四日一服以防再發.

44) 木通大安湯: 木通, 生地黃, 苦參, 羌活, 黃連, 車前子.

45)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 可知矣 於是 每日用此藥 四貼 晝二貼連服 夜二貼連服 數日用之泄瀉 永止 頭部兩鬢 有汗而病兒諱語證 變爲發狂證 病家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 不出 小便 秘結 口嚙冰片 不省人事 爰象 可惡矣 勢無奈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兩 連十貼灌口 其夜 小便 通三碗.

46)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古方猪苓湯 不如新方猪苓車前子湯之俱備 古方白虎湯 不如新方地黃白虎湯之全美矣 若陽明證 小便不利者 兼大便秘燥 則當用地黃白虎湯.

47)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小便不利者 兼大便秘燥 則當用地黃白虎湯.

證으로 下消는 陰虛惡熱證으로 볼 수 있다. 上消에 涼膈散火湯, 中消엔 忍冬藤地骨皮湯을 下消엔 熟地黃苦參湯을 사용한다. 胸膈熱證에 속하는 涼膈散火湯과 忍冬藤地骨皮湯에만 茯苓이 사용되지 않으며 陰虛惡熱證에 속하는 熟地黃苦參湯에는 白茯苓이 사용된다.

『辛丑本』 少陽人 浮腫에선 木通大安湯과 荊防地黃湯에 木通을 加한 처방이 쓰인다.

『辛丑本』 木通大安湯에선 『甲午本』 과 달리 赤茯苓이 사용되며 荊防地黃湯에선 赤白의 구분 없이 茯苓이 사용된다. 또한 浮腫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荊防地黃湯에 木通을 加한 처방이 쓰이며 처방의 목표는 소변을 맑게 해야함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⁴⁹⁾.

3) 少陽人 泄瀉와 茯苓

『草本卷』

『草本卷』에선 少陽人이 오랫동안 泄瀉를 하여도 輕한 병이라 하였다⁵⁰⁾. 泄瀉에 응용할 수 있는 약으로 黃丹을 제시하였으며⁵¹⁾, 泄瀉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五苓散⁵²⁾을 사용하였다. 五苓散은 赤茯苓이 사용된 처방이다.

『甲午本』

東武는 『甲午本』에서 少陽人 表之裏病 腹痛, 泄瀉의 기전을 膀胱이 안을 지키는 眞陰이 허약하여 熱氣가 相搏한 까닭으로 보았으며 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七味苦參湯 加 牡丹皮一錢)을 사용하였다. 腹痛이 있으나 泄瀉를 하지 않는 경우는 柴胡四苓散과 八味苦參湯에 石膏를 加하여 사용하였다⁵³⁾. 柴胡四苓散과 八味苦參湯은 모두 赤茯苓이 사용된 처방이다.

『辛丑本』

『辛丑本』에서 少陽人의 泄瀉는 亡陰證에 속한다. 身熱頭痛泄瀉엔 猪苓車前子湯과 荊防瀉白散을 身寒腹痛泄瀉엔 滑石苦參湯과 荊防地黃湯이 사용되며 모든 처방엔 赤白의 구분 없이 茯苓이라 기재되어 있다.⁵⁴⁾ 身熱頭痛泄瀉에는 의심 없이 石膏를 쓰고 身寒腹痛泄瀉에는 黃連과 苦參을 써야함을 말한다⁵⁵⁾. 즉 小便赤澀하고 大便秘燥한 胸膈熱證의 상황이 아니면 茯苓과 石膏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身熱頭痛泄瀉와 身寒腹痛泄瀉의 처방구성에서 공통인 부분은 茯苓, 澤瀉,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이며 그 외의 구성에 있어선 두 병리의 처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즉 亡陰의 기본 증상인 泄瀉를 조절하는 근간은 茯苓, 澤瀉, 荊芥, 防風, 羌活, 獨活임을 짐작할 수 있다. 茯苓, 澤瀉,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은 少陽人 利小便藥이기도 하다⁵⁶⁾. 즉 少陽人 小便不

48) 『辛丑本』 「少陽人胃受熱裡熱病論」 論曰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 淺 所欲者 速 計策 鶻突 意思 艱乏 則大腸清陽上升之氣 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 胃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頭面四肢 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 而不快足於胃局則成中消病

49) 『辛丑本』 「少陽人泛論」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用藥早則容易愈也 用藥不早則孟浪死也 此病 外勢平緩 似不速死故 人必易之 此病 實是急證 四五日內 必治之疾 謾不可以十日論之也 浮腫 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或荊防地黃湯 加木通 日再服 則六七日内 浮腫 必解 浮腫解後百日内 必用荊防地黃湯 加木通二三錢 每日一二貼用之 以清小便 以防再發

50) 『草本卷』 「病變·第五統」 少陽人 有久泄瀉瀉雖 月餘 其病輕也

51) 『草本卷』 「藥方·第一統」 苦參治龜胸咳嗽 磁石治眼病 金銀花治癰疽 黃丹治泄瀉 瓜薤仁治乳疽 竹瀝治痰燥 童便治瀉陰火 石花補虛勞 麥芽消食滯 猪肝清眼精 覆盆子滋陰元

52) 『草本卷』 「藥方·第一統」 五苓散 治運氣 熱結膀胱 夏月腹痛泄瀉 澤瀉 三錢 赤茯苓 猪苓 各二錢 滑石 柴胡 各一錢

53) 『甲午本』 「少陽人外感膀胱病論」 今考更定 少陽人病 微腹痛大滑泄 當二三度而止者 其病必快解也 而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 或但痛不泄者 卽膀胱內守之眞陰虛弱 熱氣相迫之故也 傷寒病有此證者 始發已爲重險證 不可不急治 當用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 日三四服 又連日服 此證 腹痛而有泄瀉者 重證中輕證猶在也 腹痛而無泄瀉者 重證中其證又險 跋也 當用柴胡四苓散 八味苦參湯加石膏一錢

54)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盤龍山老人論曰 少陽人身熱頭痛泄瀉 當用猪苓車前子湯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參湯荊防地黃湯 此病名謂之亡陰病

55) 『辛丑本』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 身熱頭痛泄瀉者 用石膏 無疑 身寒頭痛泄瀉者 用黃連苦參 無疑

56) 『辛丑本』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論曰 陰黃 卽少陰人病也 當用朱氏茵陳橘皮湯¹⁾茵陳四逆湯 女勞之黃 熱家之黃 利小便之黃 想或非少陰人病 而余所

利와 마찬가지로泄瀉도降陰, 補陰의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며茯苓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考 察

1. 『草本卷』, 『甲午本』 少陽人 처방에서茯苓이 포함된 처방은 대부분赤茯苓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辛丑本』으로 오면서赤茯苓의 사용빈도가 낮아지고赤白의 구분이 없이茯苓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東武가 초기에 주로熱證이 많은少陽人 병리에 중점을 두고白茯苓보다 약성이 찬赤茯苓을 이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辛丑本』에선少陽人 熱證에서 굳이赤茯苓을 고집하기보다는石膏를加하는 방식으로 처방구성이 바뀌어간다. 이는茯苓이赤白의 구분 없이 점차降陰補陰하여保命之主를 유지하는茯苓자체의 사상의학적 약성에 충실해지는 변화라 보여진다. 물론『辛丑本』 新定方 중에서荊防敗毒散과木通大安湯에서赤茯苓을 사용하였으며十二味地黃湯과熟地黃苦蓼湯에서白茯苓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荊防敗毒散과木通大安湯은『甲午本』에서도 그 처방 명이 존재한 것으로 볼 때荊防敗毒散, 木通大安湯, 十二味地黃湯, 熟地黃苦蓼湯은『辛丑本』 新定方 중에서도 초기 생각을 반영한 처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하지만赤白茯苓의 구분에 있어선『甲午本』과『辛丑本』의 조문과 이론연구 및 기타少陽人 약물의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확실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草本卷』에서少陽人의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방 중茯苓이 사용되는 경우는腰將軍湯 하나이며白茯苓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처방 중痰의 병리와 관련된 처방 중에는

茯苓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辛丑本』에선荊防敗毒散에서赤茯苓이 사용되었고導赤降氣湯에선赤白 구분 없이茯苓으로 기재되어 있다.

『草本卷』에서少陽人 小便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방 중猪苓白虎湯에만赤茯苓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처방 중 小便의 병리와 관련된 처방 중猪苓白虎湯, 水火既濟湯, 七味苦蓼湯, 七味猪苓湯에서赤茯苓이 사용되었으며六味地黃湯 한 곳에서白茯苓이 사용되었다. 『辛丑本』 처방 중 小便의 병리와 관련된 처방 중에는木通大安湯에서赤茯苓이熟地黃苦蓼湯에선白茯苓이猪苓車前子湯과六味地黃湯에선赤白의 구분 없이茯苓으로 기재되어 있다.

『草本卷』에서泄瀉를 치료하는 처방은五苓散이었으며赤茯苓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처방에서泄瀉를 치료하는 처방은柴胡四苓散과八味苦蓼湯이었으며 모두赤茯苓이 사용되었다. 『辛丑本』 처방에서泄瀉를 치료하는 처방은荊防地黃湯, 滑石苦蓼湯,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이었으며 모두赤白의 구분 없이茯苓이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草本卷』, 『甲午本』에서의少陽人 痰飲, 小便不利, 泄瀉의 병리기전이『辛丑本』에서 더욱 세밀하게 정리되면서茯苓의 활용 빈도도 같이 높아졌다. 또한東武는痰과小便, 泄瀉의 조절 모두에 있어赤茯苓과白茯苓 또는茯苓을 사용하였다. 즉化痰에는白茯苓, 通水道에는赤茯苓의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東武가少陽人에 있어痰과小便, 泄瀉를 치료함에化痰·通水道하는證治醫學의 관점에서茯苓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表陰降氣·裏陽升氣의 사상의학적 관점에서茯苓의 사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3. 『辛丑本』으로 오면서茯苓이 사용된 10개의少陽人 처방 중에서熟地黃苦蓼湯을 제외한 모든 처방에서少陽人 補陰藥인荊芥, 防風, 羌活, 獨活과茯苓이 함께 쓰였다. 또한少

經驗 未嘗一遇黃疸而治之 故 未得仔細裏許 然 痞滿黃疸浮腫 同出一證而有輕重 若欲利小便 則乾薑良薑陳皮青皮香付子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防風羌活獨活茯苓澤瀉 能利少陽人小便

Table 9. 痰飲, 小便, 泄瀉 관련 처방에서의 赤茯苓·白茯苓 구분

	初本券		甲午本		辛丑本			
	處方	茯苓	處方	茯苓	處方	茯苓		
痰飲	腰將軍湯	赤	荊防敗毒散	×	荊防敗毒散	赤		
			千金導赤散		導赤降氣湯	茯		
			柴胡瓜蒌湯					
			白虎湯					
小便	導赤散	×	豬苓白虎湯	赤	地黃白虎湯	×		
			地黃白虎湯	×	涼隔散火湯	×		
			錦上添花白虎湯	×	X			
			渡海白虎湯	×				
			陽毒白虎湯	×				
			水火既濟湯	赤			忍冬藤地骨皮湯	×
	豬苓白虎湯	赤	七味苦參湯	赤			荊防地黃湯	茯
			七味豬苓湯	赤			豬苓車前子湯	茯
			六味地黃湯	白	熟地黃苦參湯	白		
			清涼散火湯	×	木通大安湯	赤		
			防風通聖散	×	X			
			木通大安湯	×				
泄瀉	五苓散	赤	柴胡四苓散	赤	豬苓車前子湯	茯		
			八味苦參湯	赤	荊防瀉白散	茯		
					滑石苦參湯	茯		
					荊防地黃湯	茯		

陽人 裏病 胸膈熱證의 처방을 제외하곤 熟地黃, 山茱萸, 生地黃, 石膏, 知母와 함께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大靑胸膈散風’하는 荊芥, 防風은 上焦의 藥으로, 大補膀胱眞陰하는 羌活, 獨活은 下焦의 藥으로 구분된다.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은 少陽人 補陰藥으로 표리의 구분 없이 두루 쓰이나 작용 부위가 胸膈과 膀胱으로 볼 때 表部에 주로 작용하는 약이다. 裏陽升氣 시키는 石膏와 生地黃은 上焦의 胸膈熱證에 주로 쓰이며 熟地黃, 山茱萸는 下焦의 陰虛惡熱證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茯苓의 사용 예로 볼 때 上下焦와 表裏病에 구분을 규정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茯苓은 上下焦·表裏의 구분 없이 작용하며 荊芥, 防風, 羌活, 獨活과 같이 작용하여 少陽人 保命之主의 유지와 보존에 필수적인 약물이라 생각된다. 이를 정리 하면 Table 10과 같다.

4. 사상체질의학의 이론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茯苓의 赤·白구분에 있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대한약전에선 赤·白의 구분이 없이

Table 10. 少陽人 처방에서의 茯苓의 효능

中上焦	表陰降氣▼		裏陽升氣▲	
	胸膈		胃	
	荊芥 防風	清胸膈 散風	清上焦	石膏 生地黃
茯苓(上下表裏를 조절)				
下焦	羌活 獨活	補膀胱 眞陰	補下焦	熟地黃 山茱萸
	膀胱		大腸	
	表▼		裏▲	

茯苓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茯苓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분 분석으로 볼 때 赤·白茯苓의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赤·白茯苓의 선택 기준을 정하거나 효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임상적인 효능이나 실험적 평가에 근거한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IV. 結 論

以上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少陽人 처방에서의 茯苓 활용의 이론적 근거가 『東武遺藁』 藥性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赤茯苓, 白茯苓의 구분은 사상의학의 이론이 발전해 감에 있어 점차 무의미해 진다고 생각된다.
3. 茯苓은 少陽人의 上下表裏에 모두 작용하여 保命之主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작용을 한다.

V.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2. 李濟馬.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
4.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文友社, 서울, 1929.
5. 李濟馬. 梁병무, 차광석 譯解. 東武遺藁. 海東醫學社, 서울, 1999.
6.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1.
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共編著. 本草學. 永林社, 서울, 1998.
8. 박성식. 「東武遺藁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9.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1-9.
10.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33-51.
11.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의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1):33-44.
12. 김명균, 박성식. 四象體質別 藥物의 混用에 관한 文獻의 研究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22-30.
13. 서웅, 송정모. 少陽人 新政處方의 形成過程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1):213-243.
14. 심규현, 심미란, 김정렬, 전종원, 김달래. 四象體質別 利小便 藥物의 效能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87-196.
15.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21.
16.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http://herbmed.kfda.go.kr/herb/search_details.jsp?code=KP-N16